

대체투자, 리스크 관리가 요체다



■ 매경데스크

장종희
증권2부장

요즘 자산운용업계에서는 '대체투자(AI)'가 화두다. 앞으로 1~2년간 저금리 기조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채권투자 수익이 줄어들 게 뻔해졌기 때문이다. 연금·보험사 등 '큰손'으로 불리는 기관투자자들은 앞다퉈 조금이라도 수익을 더 내보겠다는 안간힘을 쓰고 있다. AI가 그 핵심 수단으로 각광받는 셈이다.

약사부동산자산운용과 보스톤컨설팅 그룹 조사에 따르면 전 세계 대형 보험사 28곳의 운용자산(AUM) 가운데 80%가량은 대체투자에 투입돼 있다. 금리가 1%포인트만 떨어져도 2000억달러(약 205조원) 손실이 불가피한 구조란 얘기다. 결국 AI는 기관투자자들에게 피할 수 없는 숙명이 됐다.

AI는 전통적 투자 수단인 주식·채권을 벗어난 투자를 한꺼번에 묶어 부르는 말이다. 기업 인수·합병(M&A) 등 사모투자(PE)·인프라(SOC)·부동산·헤지펀드 투자 등을 아우른다. 박근혜정부가 창조경제의 핵심으로 꼽는 벤처투자도 AI 범주에 들어간다.

일반만 해도 금융위기·대지진 약조건 속에서도 AI의 대표적인 사모투자(PE)가 급증했다. 올 들어서만 20%나 늘었고 내년엔 더 커질 태세다. 리서치업체인 캐시퀘이크에 따르면 앞으로 4년간 전 세계 자본시장에서 1조4000억달러(1435조원)의 막대한 자금이 AI로 몰릴

전망이다. 국내 기관투자자 사이에서도 AI 선호가 뚜렷하다. 국민연금·사학연금 등 연기금은 물론 국부펀드인 한국투자공사 등이 10% 안팎인 AI 투자비중을 몇 년 내에 12~20% 선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다. 이미 AI 비중이 14~15%인 한화생명 등

연기금 등 국내 기관투자자 대체투자 비중 20%대 확대 10%대 수익률 낙관은 금물 장기전략과 위험관리 먼저

보험사도 20% 선으로 늘린다. 현재 전 세계 운용자산 중 AI 비중 15%를 곧 위협할 가능성이 높다.

AI 확대 기조 속에 국내 등록된 사모투자펀드(PEF)만도 벌써 250개로 늘었다. PEF 출자약정액(투자예정자금)은 지난해 말 44조원으로 커졌다. 지난해 국내 PE시장 실제 투자도 7조원을 훌쩍 넘어 사상 최대다. ING생명·코웨이 같은 초대형 M&A 딜이 잇따른 여파다. 올 들어선 단일 건으로 6조원을 웃도는 OB맥주 M&A가 성사되는 등 PE가 전 AI 투자는 더 크게 증가하는 추세다. AI가 빠른 속도로 늘어나는 만큼 풀이

아할 속제도 많다. 벌써 국내 AI시장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목표수익을 내기 어려운 상황으로 몰리고 있어서다. 일각에서 생각하듯 AI에 들어가지만 하면 10%대 수익을 낼 것이라 과도한 낙관은 금물이다. 해외 부동산·자원·M&A 투자가 각광을 받긴 하지만 전략과 위험관리는 아직 따라가지 못하는 실정이다. 자칫 AI 붐 속에 적박을 내는 투자도 늘어날 소지가 없지 않다.

사실 AI는 폭이 넓은 만큼 위험요소도 많다. 조금 더 높은 수익률을 쫓는 게 능사가 아닌 이유다. 지난 13일 매일경제 주최로 열린 '대체투자 콘퍼런스(GAII 2014)'에서 전문가들이 "AI는 위험관리야 핵심"이라고 입을 모은 걸 꼽아야 봐야 한다. 그렇다고 당국이 나서 AI 심사 기준을 강화하기만 해서는 AI가 제 궤도에 오르지도 못하고 시를 우려가 크다. 콘퍼런스에서 제기된 것처럼 부동산·PE·헤지펀드 같은 투자방식별 분류 대신 유동성·투자위험을 기준으로 총체적으로 관리하며 장기적인 AI계획을 짜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 선진 AI 유동성관리방식을 빨리 벤치마킹하고 노하우를 기관투자자들이 공유하는 것도 좋다.

정부 부처 간 일관된 정책방향도 짚아야 한다. 금융당국이 PEF 대기업집단 지정제와 등 규제를 풀어 AI를 활성화한다는 마당에 다른 한편에선 보여주지 않는 정책이 골고루 있다. 중소기업청이 벤처캐피탈 실적통계를 홍보한다며 공시를 늦추겠다고 나선 게 그렇다. 투자독려·규제개선·장기계획보다 커진 시장에서 통계를 발표하며 생색만 내는 건 성과 홍보에 도움이 되기는커녕 근대노믹스 근간을 흔든다는 걸 관계 당국자들이 명심했으면 싶다.

마흔섯 해 걸머디나 나보다
한곳에 서 있는 저 여러 생강나무가
훨씬 더 많은 지구의 기억을
시간의 그늘 곳곳에 켜켜이 새겨준다.

시가 있는 월요일

나무의 시간



자연 앞에 섰을 때 내가 얼마나 미약한 존재인지 깨닫게 된다. 산과 들에 조용히 서 있는 생강나무보다도 짧은 게 우리네 인생이다.

생강나무는 생강이 열리는 나무가 아니라 가지를 꺾었을 때 생강 냄새가 난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봄철이면 소박하면서도 아름다운 노란 꽃이 피는 나무다. 산전수전 겪으며 길고 험난한 인생을 산 것 같지만 자연에 비하면 참나에 지나지 않는 게 인생이다. 여러 생강나무가 전전히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고 하는 동안 우리는 숨 가쁘게 달리기만 했을 뿐이다. 바쁘게 오가는 우리가 자취도 없이 사라진 다음에도 저 생강나무는 여전히 꽃을 피우고 있을 것이다.

이 시는 '나무의 시간'과 '인간의 시간'을 절묘하게 대비시켜 삶을 되돌아보게 해주는 좋은 작품이다.

허연 문화부장(시인)

출연 어느 날 내 길 끊기듯
땅 위를 걸어다니는 것을
모든 자취 사라져도
생강나무는 노란 털눈 뜨고
여전히 느린 시간 걸고 있을 것이다.

지구의 여행자는 내가 아니라,
생강나무임을 아프게 깨달은 순간에
내 그림자도 키 늘어 슬그머니
생강나무의 시간 속으로 접어든다

-정우영 작 <생강나무>

오늘 대통령 담화후 세월호 이념싸움 멈춰라

박근혜 대통령이 오늘 오전 9시 세월호 참사와 관련한 대국민 담화를 발표한다. 사고 발생 후 34일 만이다. 희생자 유가족과 국민에게 다시 사과하고 관(官)피아 철폐, 공무원의 무능·복지부동 척결 방안과 함께 국가재난방재시스템 정비 방안 등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은 담화 발표 후 바로 1박3일간 짧은 일정으로 UAE를 다녀온다. 우리가 건설 중인 원전 1호기 원자로 설치 행사가 가는 것으로, 한국형 원전의 세계시장 추가 확보를 지원하기 위한 세월호 외교다.

박 대통령은 대국민 담화를 시작으로 내각과 청와대 참모진 개편 등 인적 쇄신까지 단행해 세월호 참사를 딛고 일어나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인프라스트럭처 구축에 나서려 한다. 공직사회를 대대적으로 혁신하고, 과거 60여 년간 쌓여온 사회 곳곳의 폐단을 정비하기 위한 제도화 시스템 개혁으로 국가 개조에 가까운 작업을 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일부 사회·시민단체를 중심으로 한 비

관세력들은 사고 수습 부실에 대한 정부 책임을 강조하며 박 대통령 퇴진 주장까지 제기하고 있다. 지난 주말 서울 도심에서 열린 희생자 추모 촛불집회 참가자들은 신고된 행진경로를 벗어나 청와대 방면으로 가려다 110여 명이 경찰에 연행되는 사태까지 벌어졌다. 보수단체들은 여기에 맞서 별도 집회를 열어 '비통한 사태를 국론 분열에 악용하는 대반대한다'며 맞대결하는 모습을 보였다.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에 대해 한쪽에서는 기대에 못 미친다며 공세 수위를 더 높이고, 다른 쪽에서는 맞불 공격을 되풀이한다며 그야말로 쓸모없는 국력 소모다. 광우병 시위의 대자위 같은 불온한 시도는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세월호 대책을 위한 임시국회도 오늘부터 시작되는 만큼 진상규명특별법 제정 등 실제로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데 주력해야 한다. 박 대통령이 강조했듯이 이제부터는 세월호 사고 이전 대한민국과 이후 대한민국이 전혀 다른 나라가 되도록 국론 통합에 노력해야 한다.

한국 금융업, 싱가포르·홍콩 수준으로 규제 줄여야

전국경제인연합회가 국내에 진출한 39개 외국계 금융사를 대상으로 국내 금융산업 경쟁력에 대해 점수를 매겨 보니 67.5점이라는 낙제점이 나왔다. 홍콩 싱가포르 등 금융 선진국을 100점으로 할 때 우리 금융 현주소가 그 정도밖에 안 된다는 것이다. 그 이유로 '과도한 규제와 정부의 과도한 개입'(64.2%)을 가장 많이 꼽은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한국 금융산업이 선진국 수준에 도달하는 조건으로도 규제 완화(71.8%)를 지적한 금융사가 가장 많았다.

금융계 규제 혁파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경제 규모에서 10위권에 드는 국가에 세계 50위 안에 드는 은행이 하나도 없다는 것은 금융산업이 그만큼 규제에 가려 성장하지 못한 것이다. 역대 정권마다 금융계 규제 혁파를 외쳤지만 '관치금융' '금피야'로 대변되는 금융계 현실은 하나도 바뀌지 않았다. 이번 정부도 작년 11월 숨은 금융 규제를 완화하고 경쟁을 촉진해 GDP에서 차지하는 금융업 비중을 현재 7%에서 2020년까지 10%로 끌어올리겠다고 약속

했다. 불필요한 규제를 없애 금융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겠다는 것인데, 발표 이후 세월호 참사에 묻혀 어떻게 됐는지 점검조차 없다.

현재 금융산업은 저속은행 사태 이후 고객정보 유출 사건에 각종 부정·비리 사고가 동시다발로 터져 최악이다. 이런 매일수백 각종 규제를 풀어 금융계가 새로운 이익을 창출할 능력을 키워줘야 한다. 박근혜 대통령이 금융·의료·관광 등 5대 유망 서비스 분야에 대한 규제를 재검토하겠다고 말한 마당이다. 이번만큼은 잘못된 규제를 바로잡아 서비스업을 살릴 때인데 금융계가 지금까지 손을 놓고 있어서는 안 된다. 서비스산업 육성은 국부 창출을 위한 유효한 방안이며 그 핵심에는 금융산업이 있다. 영업과 시장 진입 등 숨어 있는 규제를 날뎌야 찾아내고 소비자 보호·개인정보 보호 등 시스템 안정을 위한 규제는 촘촘히 마련해야 한다. 규제를 확실하게 푼다고 한 만큼 관료들도 기득권을 내려놓겠다는 각오가 필요하다.

등록후보 40%가 전과자라니 유권자를 뭘로 보나

지난 15~16일 등록을 받은 결과 6·4 지방선거에 후보자 8994명이 출사표를 냈다. 민선 6기를 맞는 이번 지방선거는 광역단체장 17명, 기초단체장 226명, 광역의원 789명, 기초의원 2898명, 교육감 17명,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의원 5명 등 지방자치조직 일꾼 3952명을 뽑는다. 시·도지사과 기초단체장, 교육감에서는 3대1을 넘는 경쟁률을 보였지만 광역의원과 기초의원은 2.5대1에 미치지 못했다.

유권자들은 등록후보들의 적지 않은 흠결에 실망과 놀라움을 감추기 어렵다. 지난 5년간 부과된 소득세와 재산세, 종합토지세 중 체납액이 있는 후보는 110명(1.3%)이 있었으며 병역을 마치지 않은 후보도 980명(11.2%)에 달했다. 무엇보다 4년 전 선거 때 전과기록을 가진 후보가 12.6%에 그쳤는데 올해에는 40%로 급증했다. 지난 2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에서 이번부터는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이 확정된 모든 범죄와 관련 전과를 공개토록 규정을 강화하면서 나타난 현상이다. 상당수가 도로교통법 위반 전과에 해

당된지만 선출직 공직에 나서려는 후보라면 자기 관리에 한층 엄격해야 했다.

세월호 참사 영향으로 안전공약이 쏟아지고 있는데 말 잔치에 그치지 않아야 한다. 선심성 복지공약도 지난번 선거 때 무상급식 후유증을 감안해 자제돼야 한다. 어떤 정책이든 실행을 위한 구체적인 자원 조달 방안 등 타당성과 실현 가능성을 고려하지 않는다면 포퓰리즘의 반복일 뿐이다. 이번 지방선거 총유권자는 4130만여 명으로 2010년 때보다 244만명 늘었다. 하지만 세월호 참사가 정치권 전반에 대한 혐오와 냉소를 키워 지방선거를 외면하고 불참하는 층이 늘어날까봐 걱정스럽다.

선거는 대의제 민주주의의 제도하에서 주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하는 최대 축제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주민생활을 맡을 살림꾼과 감시자를 뽑는 지방선거라는 성격에 맞춰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역량과 자질을 갖춘 적임자를 뽑아야 할 것이다.

이제는 삼각형사프트의 시대다!

세계 최초

창조

원통형에서 삼각형 사프트로 진화, 3개의 탄성바와 8축 결합소자에 의한 뒤틀림이 없다

슬라이스와 훅을 잡아주는 명품 삼각형 사프트

세계 최초 다코다 삼각드라이버



다코다 삼각드라이버

9.5	S	SR	R
10.5	S	SR	R L

소비자가 ₩1,580,000원 ▶
특별할인가 ₩890,000원
삼각사프트 별도 판매

본사의 1644-7218

평균 5타이상 줄여주는
9번아이언길이로
180m 비거리 확보

원형그리퍼이트 (기본형) ₩250,000원
스틸 NS PRO 950 (7면아이언기준 155m이상자 권장) ₩250,000원
삼각사프트 (코팅형) ₩400,000원

세계 최초 유틸리티아이언 INOUT

전국대리점 모집

선봉적 인기를 끌고 있는 (주)리펀골프에서 대리점을 모집합니다

YouTube NAVER 검색창에 리펀골프 을 쳐보세요! www.lefungolf.com

판매점
 • 신세계백화점명동점 02)310-1538 • 신세계백화점강남점 02)3479-1532 • 서울양재점 02)3461-6004 • 일산 070)4155-3650 • 원주 033)765-7995 • 인천 032)521-3075 • 대전 042)823-9596 • 대구 053)257-4848
 • 울산 052)269-1872 • 부산진구 051)804-8885 • 부산강서 051)335-2215 • 부산동래 051)556-5525 • 포항 054)277-0274 • 광주 062)261-7770 • 당진 041)357-4466 • 천안 041)622-1023 • 포천 031)542-6579

